

한국화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

광주은행 '제2회 광주화루' 10인 작가전

대상에 박재철 작가 '비천한 길'
최우수상 전은희 작품 등 20여점 전시
11일~5월 7일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12월엔 서울서 '조선민화결작전'



▶박재철 작 '비천한 길'

'한국화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해부터 한국화의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공모전 '광주 화루(畫壺)'를 열고 있다. 오랜 문인화의 전통을 간직한 광주·전남이 광주 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더불어 대한민국 미래 문화콘텐츠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도 담은 행사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공동주최하는 '제2회 광주 화루' 10인의 작가전이 11일부터 5월 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6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작가들은 지난 4개월간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명의 화가들이다. 10일 열린 개막식에서 발표된 대상 수상자 박재철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모두 20여점이 관객들을 만난다. 작가들은 한국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통해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시상했던 '광주화루 작가상'을 폐지하는 대신 수상자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지원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이호익 작가가 대상을, 하성흠, 장예숙 작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상금 3000만원)을 수상한 박재철 작가는 강진 출생으로 홍익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



10일 열린 제2회 광주화루 시상식.

업했고 두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봄의 동네 잔치' 등 어린이 책을 쓰고 그렸다.
박 작가의 작품 '비천한 길' 시리즈에는 의자, 지폐, 보도블럭, 컵라면 컵 등 세속적인 삶을 보여주는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한다. 나뭇가지에 끼워진 돈, 흐트러진 꽃다발 등은 작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장치들이다.
최우수상(상금 2000만원)을 수상한 전은희 작가의 작품은 수채화 느낌의 은은한 색감이 인상적이다. 화려하고 깨끗한 현대적인 장소 대신에 후미지고 오래된 곳, '새로 생겨난 도시의 건축물에 가려

조그리고 숨어 있는 오래된 주거지'에 눈길을 주며 담아낸 작품들이다.
알 수 없는 목적의 육체 노동을 반복하는 이들을 화면에 등장시킨 조만아 작가, 추상적 느낌이 강렬한 작품을 선보인 김선영 작가, 전통적인 수묵화의 소재인 산과 강, 바다 등을 추상화 시켜 캔버스에 묵탄으로 표현해낸 김민호 작가는 장려상(각각 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그밖에 박병일·전은희·정경화·진희란·한상아·한승협 작가의 작품도 선보인다.
공모전 이름 화루(畫壺)는 조선 후기 문인들이 추사 김정희의 제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솜씨를 겨루고 품평을 받은 데서 연유한다. 당시 화가 그룹의 명칭이 화루(繪壺), 서가 그룹의 명칭이 '묵진(墨陣)이었고, 화루는 '화'를 '화'로 바꾸어 만든 명칭으로 그림으로 경쟁하기 위해 모인 화가들의 그룹을 말한다.
한편 광주은행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과 공동으로 우리 전통 민화를 주제로 한 '조선민화결작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화루를 통해 광주가 우리 시대 한국화의 미래를 제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요일 휴관, 무료 관람, 문의 062-239-50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발레단 '지젤' 공연

13일·14일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발레단의 2018수시공연 '발레 갈라 콘서트#3. 클래식 명작 발레'가 13일 오후 7시30분, 14일 오후 2시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클래식 발레 명작들의 하이라이트를 만나보는 '발레 갈라 콘서트'시리즈는 시립발레단이 창단 이후 41년동안 쌓아온 역량을 집약해 선보이는 시리즈다.
'발레 갈라 콘서트'는 최태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해설자로 나서 친절한 해설이 함께하는 '발레 특, Talk!'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에게 매 작품마다 감상 포인트를 짚어주며 발레를 보다 쉽고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모든 낭만적 이상과 가치를 다루는 대표적 로맨틱 발레 '지젤'을 선보인다. 낭만적인 클래식 발레 대표작인 '지젤'은 약 170여 년 동안 세계 발레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작품으로 이날 공연에서는 극중 2막 '어두운 밤, 깊은 숲 속의 무덤가'를 선보인다. 2막은 죽음을 뛰어넘는 애뜻하고 숭고한 여인 '지젤'의 사랑을 비극적이고도 아름답게 표현했다. 전석 1만 원. 문의 062-522-8716, 062-613-8234.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남구 14~15일 고싸움놀이 축제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우수영 강강술래·줄타기 공연도



유진 박

남상일

'흥겨운 고싸움 놀이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33호 고싸움놀이 축제(사진)가 오는 14~15일 광주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첫날인 14일에는 2009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수영 강강술래(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를 선보이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풍선매직 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또 국가 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를 이수한 줄타기 신동 남창동 군의 공연 무대와 민요가수 민성아의 축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 7시 30분부터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행사가 열린다. 개막식 첫 공연은 타악그룹 얼쑤가 장식하며 바이올리니스트인 유진 박은 얼쑤와의 사물놀이 협연을 통해 '아리랑 판타지'를 선보인다.
이어 국악인 남상일 씨의 축하 공연과 신명나는 농악, 우리 소, 비보잉 댄스가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지며 밤하늘에 소원을 담아 비는 풍등 날리기, 관객과 함께 매듭을 만들고 풀어가는 농심줄놀이, 용줄놀이, 불꽃놀이 등이 펼쳐진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칠석농악단의 사물놀이 공

연을 시작으로 봉산탈춤(국가 무형문화재 제17호), 양태옥류 진도 북놀이(전남 무형문화재 제18호), 황승욱(광주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 병창 기능 보유자) 가야금 연주단의 가야금 병창 공연,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우승자인 왕기철 명창이 선보이는 흥부가 '박타는 대목'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또 축제 하이라이트인 고싸움놀이는 300여명의 고별꾼과 줄잡이들이 동부고와 서부고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국 5인 줄타기 대회와 축제를 마무리하는 대동한마당 큰줄타기 대회와 축제를 마무리하는 대동한마당 큰줄타기 대회는 많은 상품이 걸린 가운데 수백명의 관객이 참가해 열띤 승부를 펼치며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그래픽 오늘회' 회원전 14~18일 순천문화건강센터

무등그래픽 오늘회(회장 정원석) 21번째 회원전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순천문화건강센터 1층에서 열린다. 지난 1976년 무등그래픽디자인회에서 출발한 후 2015년 이름을 바꿔 활동하는 무등그래픽 오늘회는 지난해 목포에 이어 올해는 순천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를 비롯해 순천, 곡성, 고흥, 제주 등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동양화, 서양화, 서예, 디자인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강병순 작가는 푸르른 순천만의 보리를 화폭에 담았으며 강순애·김명자·이경현 작가는 예스러운 매력이 물씬 풍기는 민화 작품을 선보인다. 또 서원길 작가는 힘든 세상에 위로가 되는 '따뜻한 나눔'을, 정원석 작가는 사계절 풍경을 담은 서양화 작품을 내놓았다.
그밖에 김용용, 노영현, 박근수, 박순덕, 이경현·최승우 작가 등 15명 회원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내년에는 광주에서 회원전을 열 계획이다. 오프닝 행사 14일 오후 2시. 문의 062-234-27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원길 작 '늘 머물렀던 그리움--어머니'

제 63회 호남예술제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2018. 4.19 목 - 5.29 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전국대회

- 신창기간: 음악·무용·국악 부문 2018. 4. 4(수) - 4. 11(수), 미술·작문 부문 2018. 5. 14(월) - 5. 16(수)
-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경연기간: 4월 19일(목)-5월 29일(화)
-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청 참조)
- 접수방법: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평일 09:00~18:00(토·일요일 제외)
- 방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 우편신청: 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청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8년 4월 16일(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예정), 개인: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단체: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 문의: 062-220-0541
-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



창사66주년